지역공동체의 활동 사례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

유 수 상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월평빌라 원장

요즘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농촌에 관련된 사람들이 입만 열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농촌이 그만큼 희망에 목말라 있다는 말일 것이며 농촌이 희망과 그만큼 멀리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제가 사는 거창도 최근 그 희망으로 웃고 또 울며 가슴을 쓸어야 했습니다. 바로 '승강기 관련 대학과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이 그것입니다. 늘 부족한 농촌에, 돈은 희망이 됩니다.

산업단지의 실체가 무엇이든 그것이 돈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희망이고 농촌을 단숨에 변화시킬 매력적

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 산업단지로 '희망'의 실체를 발견했다는 농촌은 만나기 힘듭니다.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 우리 귀에 너무도 익숙한 구체적인 상징들이 농촌의 희망이 못된다면 우리는 농촌의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농촌이 갖고 있는 '공동체', '공동체성', '공동체문화의 회복'이야 말로 농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상징, 열쇠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15년 전 이 '공동체의 회복' 이라는 '희망'을 찾아 산골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이며, 사회사업을 하는 사회사업가입니다. 제가 지난 15년간의 삶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풀어 보려고 합니다.

1.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농촌으로 오기 전 농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리산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

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묻고, 살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자와 자료를 찾아보면 농촌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땅 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면 참 바꾸고, 고치고 할 일 많은 땅 이구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시작이 얼마나 왜곡 되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8년 1월 12일 눈이 많이 오는데 거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눈이 많이 와서 더 이상 갈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마을을 2키로 앞두고 온 동네사람들이 이사 오는 저희 가정을 위해 신작로를 쓸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도시에서 따라온 많은

저 역시 시각이 바뀌면서 농촌은 계몽의 땅이거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곳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고', '홍하게' 하여 물질적 풍요와 경제 발전을 구호로 삼고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생명의 보고'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마을에서 보물을 찾다

황주석 선생님이 쓴 '마을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에서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기, 마을에서 대안 만들기' 라는 제목이 나에게 한편의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마을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이 들어서려는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활기에 차 있습니까? 죽은 듯 고요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략-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왔으며, 왜 이 마을 어귀에 서 있을까요? 그가 마을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이 마을에 역병이라도 돌아 특효약(대안)을 들고 구원의 명의名醫로 들어서는 길일까요? 아니면 이 마을로 세상을 구원할 어떤 보물(대안)을 찾으러 온 것일까요?

마을에서 발견한 보물은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촌에는 공동체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뒷집 접시들이 오가며, 마을 방송은 함께 놀러가니 회의에 참석해 장소를 의논하자고 합니다. 봄이 되면 삼삼오오 이집 밭과 저 집 밭을 오가며 품앗이를 합니다. 일년내내 저희 집 앞 평상에는 하루가 멀다고 감자, 무, 배추 파, 상치, 산나물, 사과, 옥수수 등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을 버려두고 하필이면 '독거노인, 신체장애, 정신장애, 조손

세대, 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 ' 라는 문제들에 집착하여 개발사업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농촌은 여건이 어렵고 소외돼 있으니,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끌어다가 조직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큰 일 날 소리입니다. 그에 앞서 '농촌에서 유지되는 좋은 전통, 이웃 간 인정과 나눔, 마을의 공동체성을 살펴 그것을 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사회사업을 삶으로 풀어보자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헤치지 않도록 목회와 사회사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에 아이들과 교회모여 공부를 하니 부모들이 농산물을 가져다줍니다. 모여진 농산물로 홀로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를 부녀회 아주머니들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촌교회에서 도시교회 자원을 통해 행하던 마을잔치를 주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묻고, 의논하고 주선했더니 마을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 잔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마을과 더불어 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고 이사 온지 3년 만에 씨족사회의 '제사 공동체'에 식사를 초대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한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간에 행하던 일이 바탕이 되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사회사업의 바탕과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고 산하에 장애인거주시설과 노인복지센터가 두 곳 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는 뜻있는 지역주민들 땅을 기증하고 지역교회가 바자회를 열어 모금하고 후원하고, 직접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여 합니다. 또 일꾼을 세웁니다. 15년 전 산골에 초등학교 3학년 이었던 아이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이제 직원이 되어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일하게 되는 근본에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정보원 이라는 단체의 한덕연 선생님을 통하여 사회사업의 중요한 가치 철학인 "가족성과

밑반찬 지원으로 어떻게 지역사회의 바탕을 기르고 어르신들의 인격을 세울 수 있을까요?

마침 잘게 썬 고기를 다 볶은 참이라 할머니께 '간 좀 봐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국자 맛보시더니 '됐다' 하시더군요. 지난 후에 그 때를 생각하니 '간 좀 봐 달라' 부탁드리는 것만큼 반찬 만들기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싶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랑하는 남편 혹은 시어머니께 간을 봐 달라하고 '음, 맛있는데' 한마디 듣는 것으로 요리하는 장면이 완성됩니다. 그런 장면이 빠지면 뭔가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 봐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밑반찬으로 사회사업을 한다면 '어떤 반찬을 드실지, 어떻게 만들지' 여쭤보는 것은 시작이요 '간 좀 봐 주세요' 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핵심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께 여쭙고 부탁드리는 것은 어르신의 인격을 세웁니다. 어르신을 복지서비스의 무한 수혜대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그 반찬을 드시는 삶의 주체로 세웁니다. 무슨 반찬을 어떻게 해서 만들고 먹을지 어르신이 주인이 되도록 합니다.

...

반찬 마실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지역의 아주머니를 봉사자로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웃 어르신의 반찬 만든 것을 돕는 이웃 주민입니다. 반찬 만들어 배달만 하면 그만인 상관없는 타자가 아니라 고기반찬을 좋아하고 함께 김을 구운 상관있는 이웃이 됩니다.

반찬 마실, 얻는 것이 많습니다. 유익이 큽니다.

사례 2 : 생신잔치

생신잔치로 어떻게 지역사회의 바탕을 기르고 어르신들의 인격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손수 초대하고 할머니의 친구와 이웃들이 축하객이 되고 이

다. 지금은 저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월평빌라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장님의 축하 인사로 시작하고 ...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아저씨 한 분은 검은 비닐에 사탕 한 봉지를 사 오셔서 쑥스러워 하며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은 직접 농사지은 사과로 만든 사과주스 한 박스를 가져 오셨습니다. 방앗간 주인아저씨는 수고한 사람들 마시라며 사과즙 수십 팩을 주셨습니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과주스 한 박스, 사탕 한 봉지, 사과 주스 수십 팩 ... 어쩌면 방앗간 주인아저씨 말씀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여'.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우리네 삶이었습니다. 떡 했다고 떡 한 덩이, 부침개 부쳤다고 한 접시, 김치 했다고 한 포기 ...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가야 오래가고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인정이지요.

이렇게 지역사회와 부지런히 상관하니 일하는데 신이 납니다. 쉽습니다. 그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참 복지 같습니다.

4. 공동체성 회복의 대안 "자주성과 공생성"[2)]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회를 사회답게 하는 가치, 그 중에서도 사회사업이 감당할 수 있는 가치, 사회사업이 지키고 살려야 할 핵심 가치는 바로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입니다.[3)]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핵심 가치라 함은,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서로 도우며 살고 또한 '남녀노소 빈부강약이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 이는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의 사람살이'를 명실상부케 하는 속성입니다. 자주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삶이라 할 수 없고,

---

2) 한덕연 선생님이 쓴 '복지요결'에서 발췌

3) 지역사회의 공생성 = 당사자의 사회성 + 약자와의 공생성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 보는 데서 오는 사회사업 가치 즉 '당사자의 사회성'을 지역사회의 공생성에 포함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지역사회의 공생성은 ①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성'과 ②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사는 공생성, 특히 '약자와의 공생성'을 아우릅니다.

사회사업은 약자|당사자로 하여금 지역사회 속에 어울려 살게 돕는 일이요 또한 지역사회로 하여금 약자|당사자와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공생하지 않으면 사람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이 위하는 바 그 중심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에 있거니와, 당사자의 삶 그 실질은 자주성이요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실질은 공생성이니, 이러므로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사회사업 핵심 가치라 하는 겁니다.

1) 자주성의 핵심 요소는 당사자의 '주체의식과 역량'입니다.

주체의식이 있어야 자주하려 할 것이요, 역량이 커질수록 자주하는 일이 많아지고 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돕되 당사자 그 사람의 주체의식과 역량을 회복·개발, 유지, 개선·강화하는 방식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루도록 부탁하되 되도록 그의 역량을 살려 쓰게 도와야 합니다.[4)]

2) 공생성의 요건은 지역사회 사람 사이의 '관계와 소통'입니다.

관계와 소통이 있어야 돕거나 나누며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돕되 당사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소통을 회복·개발, 유지, 개선·강화하는 방식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위 사람에게, 이웃 주민에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여 그 사람을 돕게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이루도록 부탁하되 되도록 지역사회의 자원과 지역주민의 역량으로써 이루게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고 그 문화를 가꾸는 일은 복고적 취향이 아니라 인간적 삶을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가치의 탐색 과정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적 삶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찾는데 '가치'의 기준 없이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촌은 '생명산업의 중심'이자 새로운 생태적 가치, 대안적 공동체, 그리고 미래적 가치의 생산 기지입니다.

공동선의 극대화를 통한 개인적 삶의 안전성 확보와 개인 복지 수준의

상을 기해왔던 상호부조와 두레의 전통에 기반 한 농촌공동체가 시장지상주의의 반공동체성을 치유하는 가치의 근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먼저 농촌지역에서 '농촌공동체'가 갖는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가치를 올곧게 세우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풍성한 농촌공동체가 지역문화를 이끌고, 지역문화가 내재적 가치를 배제하고 경제적 가치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신자유주의가 황폐화시킨 세상을 치유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하는 동지들과 산골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오늘도 오롯이 서 있습니다. 내일 또 동지 한 사람이 저 마을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